

# 근대신문 소재 해외 풍속기사 연구\*

- 『황성신문』의 『세계기문』을 중심으로 -

반재유\*\*

## 〈차 례〉

1. 서론
2. 『세계기문』과 서학서의 유입
3. 대륙별 풍속기사와 계몽담론
4.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1909년 3월 11일부터 1909년 12월 3일까지 약 9개월간(139편) 발표된 『세계기문』에 주목하였다. 『세계기문』은 개별 기사마다 당시 지식인들의 주변국에 대한 선과 이를 통해 전개하려 했던 계몽담론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황성신문』의 해외 단편 기사에 대한 논의는 전무했는데, 『세계기문』을 비롯한 해외 단편 기사에 대한 고찰은 한 일강제병합시기 『황성신문』이 추구했던 방향이나 기사의 논조 및 변화 추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세계기문』 연재현황과 기사의 성격을 알아보고, 이 같은 해외기사들이 연재된 배경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세계지리 교과서로서 널리 활용된 『사민필지』와의 비교를 통해 각 기사들의 연관성 및 변별점 등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대륙별로 기사를 분류하여 각 기사의 특징들과 계몽담론들을 분석하였다. 대륙·국가별로 흥미로운 풍속기사를 통해 교훈으로 삼거나 반면교사로 삼으려했던 면모들을 검토하고, 황성신문이 국민의 근대적 의식 고취를 위해 시도했던 기획들과 의미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세계기문』의 연재가 종료된 이후로도 『황성신문』이 폐간되는 시점까지 연재를 이어간 「담총(談叢)」, 「진담(珍談)」 등의 해외기사들을 확인하였다. 표제어 속 함의 및 기사의 특징 등을 통해 『세계기문』과의 변별점을 살펴보았다.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1079581)

\*\*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

본 연구를 통해 일련의 『황성신문』 해외 연재기사가 전개했던 방향이나 변화된 흐름 및 기획 의도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황성신문, 세계기문, 사민필지, 해외기사, 풍속기사

## 1. 서론

『황성신문』은 대한제국시기 『대한매일신보』·『제국신문』와 함께 새로운 문명담론을 전개했던 대표적 근대매체였다. 그로인하여 창간 초기부터 고사 연재나 역사관련 기사, 서적발간 사업 등을 통해, 자국사에 대한 지식전달이나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sup>1)</sup>들을 지속하였다.

이 같은 흐름은 1905년을 기점으로 자국사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를 보이게 된다. 해당시기 급증한 「광고」란의 해외 서적광고와, 「논설」란의 외서에 대한 소개글<sup>2)</sup>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학부(學部) 및 민간 출판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서학서들이 간행되어 교과서로 활용되었던 국내 환경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이후 『황성신문』은 1909년을 기점으로 「세계기문」 등의 다양한 해외기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연재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해외기사들은 공통적으로 신문 1면에 발표되었는데, 『황성신문』이 폐간되는 시점까지 「담총」과 「담설」, 「진담」 등 다양한 제명으로 연재를 이어갔다.

특히, 본고에서는 『황성신문』의 해외기사 가운데, 1909년 3월 11일부터 1909년 12월 3일까지 약 9개월간(139편) 발표된 「세계기문」에 주목하였다. 「세계기문」은 개별 작품마다 당시 지식인들이 주목했던 주변국에 대한 시선들을 온전히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풍속 위주의 토막식 기사들과, 동일 지면에 발표된 수많은 이칭(異稱)의 기사들로 인하여, 일련의 연재물에 대한 기획 의도나 문학적 가치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1) 최기영, 「황성신문의 역사관련기사에 관한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2, 한국근현대사학회, 1995.

2) 반재유, 「황성신문의 독후설 연구」, 『배달말』 67, 배달말학회, 2020.

그동안 『황성신문』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신문의 폐간(1910.9.14.) 직전 발표된 연재물(1909~1910년)에 대한 논의는 소략한 상태이며,<sup>3)</sup> 그 가운데 해외 단편 기사에 대한 논의는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시기 단편 연재물에 대한 고찰은 한일강제병합시기 민족지로서 『황성신문』이 추구했던 방향이나 기사의 논조 및 변화 추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세계기문』을 중심으로 해외 기사가 발표된 배경이나 의미 등을 고찰할 것이며, 더불어 세계지리 교과서로서 널리 활용된 『사민필지』와의 비교를 통해 개별 연재기사들에 대한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일련의 『황성신문』 해외 연재기사가 전개했던 방향이나 변화된 흐름 및 기획 의도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세계기문」과 서학서의 유입

『황성신문』은 해외소식을 ‘기문(奇聞)’이라 명칭하며, 1면 주요기사로 내세우게 된다. 『황성신문』은 「대동고사」 이후 다시 1면에 기획 연재물을 게재하며, 독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비슷한 시기 2면에는 「논설」과 함께 「국의 냉평」 등 시사(時事)를 담은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3면에는 「명소고적」 등 국내 고적·고사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연재물이 장기간 발표되었는데, 이를 통해 『황성신문』은 각 연재기사의 성격에 따라 지면을 달리하여 게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기문」은 연재기간(1909.3.11.~1909.12.3.) 동안 「세계잡조(世界雜俎)」(1909.3.12.~1909.3.16./1909.4.1.~1909.4.3.), 「세계신성(世界新聲)」(1909.6.30.~1909.7.2./1909.7.6.) 「신성(新聲)」(1909.7.17.~1909.8.1.)·「세계일람(世界一覽)」(1909.7.3.~1909.7.4.) 등으로 편명을 바꿔가며 전체 139편의 작

3) 조상우, 「황성신문 소재 한문소설 별계채담 연구」, 『한국언어문학』 65, 한국언어문화회, 2008; 반재유, 「황성신문의 시평연구」, 『한국학연구』 4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 2018.

품을 발표하였다. 그 외에도 「담총(談叢)」·「담설(談屑)」·「이문진담(異聞珍談)」·「기문진담(奇聞珍談)」 등 이칭(異稱)의 연재물들이 「세계기문」과 날짜를 달리하여 발표된 바 있다. 해당 연재물들도 세계 각국의 정보를 소개한 기사들로 「세계기문」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지만, 소재의 선택이나 서술방식에 있어 상이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sup>4)</sup> 특히, 1909년 7월 2일자 『황성신문』에는 「담총」과 「세계신성」이 각각 3면과 1면에 동시에 발표된 적이 있어, 애당초 서로 다른 기획에서 출발한 연재물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연재기사들은 기존 해외신문기사들을 번역·전재하여 당시 세계정세와 소식을 소개했던 「전보(電報)」·「외보(外報)」란의 기사<sup>5)</sup>와 달리, 독자의 이목을 끌만한 국가별 풍속 기사를 지속적으로 연재함으로써 해외 열강들에 대한 문화와 풍습, 환경, 국민성 등의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세계기문」의 전체 기사 목록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세계기문」 기사 목록

번호	기사명	날짜	번호	기사명	날짜
1	北極구린란트에서는	1909.3.11.	71	前日 英國의	1909.5.13.
2	南米아센스國에서는	"	72	英國의노   뷔트 市の	"
3	倫敦警視廳의	"	73	法國巴里에서는	1909.5.14.
4	濠洲北方뉴기나島에서는	"	74	紐育에 在호는	1909.5.30.
5	米國의石油王	1909.3.12.	75	英國호스레	"
6	아고원쇼, 라구노   라	"	76	白耳義國國會에서	"
7	米國政府는	1909.3.13.	77	我國에는	1909.6.8.
8	前塞爾維王미란의	"	78	米國터터바그에	"
9	스라, 에되스스, 칼터라	"	79	一千九百五年十月以後로	"

4) 「담총(談叢)」·「진담(珍談)」 등의 연재물에 대한 특징은 본고 3장인 ‘대륙별 풍속기사와 계몽담론’에서 후술하고자 한다.

5) 『황성신문』은 1900년 1월부터 로이터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뉴스를 공급받았지만, 청국 의화단사건으로 인하여 전선(電線)이 불통하게 되자 상해·민주를 경유하여 오던 로이터 통신도 약 6개월만에 중단하게 되었다. 이후 『황성신문』을 비롯한 당시 국내 신문들의 외국뉴스 보도는 해외신문 기사를 번역·전재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박정규, 「개화기의 외국뉴스 고」, 『한국언론학회』 13, 한국언론학회, 1980, 47~53쪽 참조.)

10	日本廣島縣居 ㅎㄷ	"	80	西班牙國에	"
11	世界各國中盲人의	1909.3.14.	81	緬甸人 等은	1909.6.9.
12	倫敦에서는	"	82	英國海員中에	"
13	米國紐育에는	"	83	英國의 犯罪學者	"
14	世界에	1909.3.16.	84	슈스라나드라 ㅎㄷ	"
15	米國시카고市の	"	85	二十世紀에 文運이	1909.6.10.
16	一月十二日米國	"	86	近日 루이낙슨 造船所內에	1909.6.11.
17	二月二日米國	1909.3.17.	87	本年三月에 法國巴里에서	1909.6.12.
18	米國紐育월드新聞社에서는	"	88	現好 ㅎㄷ 世界各國의	1909.6.13.
19	前市加古大學校長	"	89	클셀드 博士의	1909.6.15.
20	法國巴리의	"	90	倫敦典當局庫間에는	1909.6.17.
21	狂者の勝利	1909.3.18.	91	俄羅斯皇帝	"
22	英國의 養老金	"	92	墨西哥國은	"
23	酸素의 興奮劑	"	93	獨逸國內에서	"
24	猿語研究	"	94	現今 巴里에서는	"
25	蜘蛛絲의 長	1909.3.19.	95	萬國速記協會에서는	"
26	白覆盆子	"	96	米國一富豪의	1909.6.18.
27	世界最大의 有益貯水池	"	97	英國倫敦에서	"
28	陸軍의 氷滑隊	"	98	米國엔 州州會에서는	1909.6.19.
29	各國元首一分間의 收入	1909.3.20.	99	瑞西國에서는	1909.6.20.
30	自働車를 不乘 ㅎㄷ 君主	"	100	世界中 波羅的海와	"
31	咖啡의 葉卷烟	"	101	獨逸索遜의	1909.6.23.
32	公益事業은 千秋不滅	"	102	中央亞米利加에서	"
33	公果自由國의	1909.3.21.	103	墨西哥에는	"
34	米國人 하이람마   시	"	104	日本에서는	"
35	各國皇室에서	"	105	今回에 誕生 ㅎㄷ	1909.6.24.
36	獨逸國	1909.3.23.	106	米國빌지니아합튼 學校는	"
37	電送寫眞法	"	107	本報前号 世界奇聞에	1909.6.25.
38	法國某雜誌에	"	108	南洋濠太利亞州의	1909.6.27.
39	近日歐米上流社會는	1909.3.24.	109	電氣大王이라	1909.6.30.
40	英國陸軍에	"	110	歐米人은	1909.7.2.
41	世界에 人口가	1909.3.25.	111	現今 世界各國 大圖書館에	1909.7.3.

42	米國열大學校教授	"	112	世界各國君主及大統領의	1909.7.4.
43	世界中植物種目の	1909.3.27.	113	佛國에서는	1909.7.6.
44	地球兩極이	"	114	天主教에서	1909.7.7.
45	佛國의南部	1909.3.30.	115	美國遊歷家로	1909.7.8.
46	英領加奈陀의	"	116	美國紐育市	1909.7.14.
47	近來米國好事家の	1909.3.31.	117	婦人에게는	1909.7.17.
48	昨年冬에뵈몬트州의	"	118	最近에	1909.7.31.
49	世界現存 書籍中	"	119	視背鏡	1909.8.1.
50	英國下議院에서	1909.4.1.	120	日本滿州에	1909.11.2.
51	今回 勃牙利議會에서는	"	121	獨逸國에서는	1909.11.4.
52	倫敦지 1 부사이드에	1909.4.2.	122	某飛行家는	"
53	獨逸문헌 府에서는	"	123	米國飛行家	"
54	米國아소나케	"	124	佛國飛行家	"
55	千九百四年來의	1909.4.3.	125	瑞典人 某氏는	"
56	米國紐育市에서는	"	126	握手禮의 起源	1909.11.12.
57	世界에 開明國中	1909.4.4.	127	漫游客과 伊國	"
58	米國켄 실벤나	"	128	最重 腦	1909.11.13.
59	鯪魚産出地로	1909.4.6.	129	選舉強制	"
60	全世界의	"	130	長少相境	"
61	伊太利에서는	"	131	珊瑚製寺院	1909.11.14.
62	阿弗利加사하라	1909.4.7.	132	觀相者千人	"
63	獨國의 人口는	"	133	世界最古國旗	1909.11.18.
64	米國시카고 市에	1909.4.13.	134	摩人의 戰術	1909.11.20.
65	大英博物館에	"	135	鯪魚心臟	1909.11.23.
66	英國리봐 1 불 市の	1909.4.14.	136	嗜烟島民	"
67	土耳其人은	1909.4.17.	137	法人의 地質研究	1909.11.26.
68	布哇島政府는	"	138	未承諾接吻罰金二百五十圓	1909.11.27.
69	露西亞에는	1909.5.7.	139	皇帝가 牧師兼職	1909.12.3.
70	今番法國의	"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기문』은 세계 각국에 대한 사건별 짧은 기사들을 소개한 연재물이다. 한 지면에 1~6편의 기사를 약 9개월 동안 발

표했는데, 총 139편에 이른다. 특히 연재초기에는 세계 열강에 대한 정보를 통해 국가의 지향점이나 자국민의 의식 변화 등을 촉구한 비판조의 기사가 다수 게재되었다.

△公益事業은千秋不滅 英國리담시에居 호든一勞働者二百前自己臨終時에同地貧民教育部에金五磅을寄付 호얏는 디該教育部는此로地段을買 호야此에서出 호는者로現今까지貧民教育에用 호金額이十萬磅이오同地段時價는五十萬磅이라더라<sup>6)</sup>

△米國엘大學校教授아핀뫼氏의計算을據 호즉肺病으로因 호야世界에消費 되는金額이一年에大約十億萬圓에達 호는 디肺病에死 호는人이每年에十三萬八千人以上이오一人이平均三年間醫藥費가三千圓은될지라我同胞는公益을爲 호야肺病을極히注意 호여야호 깃다더라<sup>7)</sup>

첫 번째 인용문은, 영국 한 노동자가 지역 빈민을 위해 돈을 기부하고 교육부는 해당 돈으로 빈민교육(貧民教育)에 사용한 현황을 소개한 기사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익사업(公益事業)의 중요성을 설파한 것으로 당시 전무했던 국내 공익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한 기사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세계 폐병(肺病) 치료에 소비되는 연간 의약비(醫藥費)에 대한 정보를 서술한 기사이다. 특히 기사 말미에 ‘공익(公益)을 위해 우리 동포는 폐병을 극히 주의하라’는 당부의 문구까지 부기하고 있어, 자국민에 대한 의식 변화 및 견문을 쌓게 할 목적에서 발표한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황성신문』이 연재했던 사회비판적 성격의 시평(時評) 기사물(『飛屑』·『局外冷評』)<sup>8)</sup>과 유사한 성격으로, 단 사건의 배경이 국내가 아닌 해외로 확대되었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같은시기 『대한매일신보』에서도 국내사건에

6) 『世界奇聞』, 『皇城新聞』 1909.3.20.

7) 『世界奇聞』, 『皇城新聞』 1909.3.25.

8) 반재유, 앞의 논문, 2018, 223~242쪽 참조.

초점을 맞춘 시평 작품들(『社會燈』·『시사평론』)이 연재되었는데, 『세계기문』에 이르러 해외 기사를 소재로 하여 자국의 상황이나 실태를 비교한 기사가 연재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기문』은 연재가 거듭될수록, 기문(奇聞)<sup>9)</sup>이라는 제목에 맞추어 나라별 진기(珍奇)한 소재들을 기사화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기문』은 연재기간 동안 종종 『世界雜俎』, 『世界新聲』(『新聲』), 『世界一覽』 등으로 편명을 바꿔가며 작품을 게재했다. 그 가운데 『世界雜俎』는 해외 단신가운데에서도 대통령리무진 구입비,<sup>10)</sup> 세계에서 가장높은 여관,<sup>11)</sup> 나라별 인구변화<sup>12)</sup> 등 잡다한 기사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世界一覽』은 세계 각국의 도서관 소장 서적 수,<sup>13)</sup> 세계 각국 군주와 대통령의 수입<sup>14)</sup> 등의 각종 목록이나, 종류를 나열하고 있다. 또한 『世界新聲』(『新聲』)은 에디슨의 현재 활동<sup>15)</sup>이나, 구미인의 다양한 애완용 동물의 종류나 풍조,<sup>16)</sup> 무선 어형수뢰 연구 상황<sup>17)</sup> 등을 말하는 등 새로운 사실을 전하는데 특징을 가진다. 각 이칭의 기사들은 대체로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한 성격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단지 각 기사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 편명을 달리한 것으로, 『세계기문』의 동일 범주 안에서 작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황성신문』에서는 을사늑약(1905년)을 전후로 해외 열강과 주변국에 대한 관심을 뚜렷히 드러내기 시작한다. 1905년 이후 급증한 『광고』란의 해외 서적광고와,<sup>18)</sup> 『논설』란의 외서에 대한 소개글<sup>19)</sup>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論說：祝賀 書籍之多售』(『皇城新聞』 1905.4.11.)에서는 본사 발간의 서책들

9) 奇聞 : 珍しいはさ, 珍しい話. 대한화사전(3-577).

10) 『世界雜俎』, 『皇城新聞』 1909.3.13.

11) 『世界雜俎』, 『皇城新聞』 1909.3.16.

12) 『世界雜俎』, 『皇城新聞』, 1909.4.3.

13) 『世界一覽』, 『皇城新聞』 1909.7.3.

14) 『世界一覽』, 『皇城新聞』, 1909.7.4.

15) 『世界新聲』, 『皇城新聞』 1909.6.30.

16) 『世界新聲』, 『皇城新聞』 1909.7.2.

17) 『世界新聲』, 『皇城新聞』 1909.7.6.

18) 『皇城新聞』은 발행된 12년 동안 전체 751종의 서적광고를 게재 했는데, 1905년 이전에는 단 25종에 불과했다. (황영원, 『근대전환기의 서적과 지식체계 변동』, 『대동문화연구』 8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3, 324쪽 참조)

19) 반재유, 앞의 논문, 2020, 105~112쪽 참조.



이 독자들에게 알려지지 않다가, ‘우연히 한 번 지면상에 게재하였더니(偶一揭告於本紙上矣러니)’, 매진을 기록했음을 전하고 있다. 지면상에 게재한 것은 「광고」란(1905.4.3.)에 실린 <서책발수광고(書冊發售廣告)><sup>20)</sup>를 지칭하는데, 『法國革新戰史』, 『波蘭戰史』, 『美國獨立史』 등 서양 역사류를 포함한다.<sup>21)</sup> 이 같은 면모는 국내에서 세계정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수의 번역서들이 집중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던 시점과 때를 같이한다. 황성신문사를 비롯한 민간 출판사·인쇄소의 본격적인 활동과 신설의 증가가 보인 것 역시 1905년 이후였는데, 당시 국내 출판운동이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외서의 번역과 출판 및 보급의 중요성을 인지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sup>22)</sup> 1909년에 이르러 「세계기문」을 비롯한 해외 단편 기사들이 신문에 장기간 연재된 것도 이 같은 국내 출판운동의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세계기문」의 기사내용에 있어서는 당시 출판된 서학서들의 영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황성신문』은 창간 초기부터 근대 지식 형성과 보급에 있어 서학서<sup>23)</sup>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한 바있다. 실례로 『태서신사남요』<sup>24)</sup>에

20) “書冊發售廣告 法國革新戰史 五十卷 波蘭戰史 四十卷 美國獨立史 四十卷 皇城新聞社.” (『廣告』, 『皇城新聞』 1905.4.3.)

21) 당시 역사서의 출판도 이상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1895년에서 1900년까지는 주로 학부와 황성신문사에서 서양사에 관한 개설적 저작을 주로 출판했으나, 1901년부터 이러한 저술물이 뜸하게 된다. 그러다 1905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1908년에 가장 많은 종수를 발행하고, 1909년부터는 신간목록에서 사라지게 된다. (강명관, 「근대계몽기 출판운동과 그 역사적 의미」, 『민족문화사연구』 14, 민족문화사학회, 1999, 64~71쪽 참조)

22) 1900년경까지 신식출판물의 절대 다수는 학부편집국의 산물이었다. 1905년 이전까지 출판활동(신식출판물)에 관계된 민간 출판사·인쇄소는 탐인사·광인사·광문사·박문사·황성신문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인쇄소가 폭발적인 증가를 보인 것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이다. 출판사(인쇄소)의 신설빈도 추이를 살펴보면 1905년 2개소, 1906년에 6개소(3개소), 1907년에 12개소(4개소), 1908년에 19개소(9개소), 1909년에 4개소(7개소), 1910년에 3개소(1개소)이다. (강명관, 위의 논문, 50~56쪽 참조)

23) 1895년 근대식 학제 도입이후 학부에서는 『태서신사남요(泰西新史攬要)』, 『공법회통(公法會通)』, 『서례수지(西禮須知)』, 『지구약론(地球略論)』 등 다수의 번역 서학서들이 출판되어 교과서로 활용되었다. (강미정·김경남, 「근대 계몽기 한국에 수용된 중국 번역 서학서」, 『한국에 영향을 미친 중국 근대지식과 사상』, 경진, 2019, 54~61쪽 참조)

24) 『태서신사남요(泰西新史攬要)』는 로버트 맥켄지(Rovert Mackenzie, 한어명 馬懇西)가 1880년 영국에서 저술한 『19세기: 역사(The 19th Century: A History)』(London, T. Lelsan and Sons)를, 티모시 리처드(Timothy Richard, 한어명 李提摩太)가 1895년 상해에서 번역한 것으로, 대한제국 건양2(1897)년 6월 학부에서 교과용도서로서 한문본과 언역본 2종을 발행하였다. (허재영, 「광학회 서목과 『태서신사남요』를 통해 본 근대 지식 수용과 의미」, 『독서연구』 35, 한국독서학회,

대해 ‘우리 국민이 이 책을 먼저 읽고 구허한 견해와 막힌 흥금을 변화하면 또한 선입(先入)의 주견이 있을 것이니, 곧 태서신사는 자와 저울로 헤아림이 있는’<sup>25)</sup> 책이라 소개할 만큼, 근대지식의 잣대이자 매개체로서 서학서를 중요시 여겼던 것이다. 『태서신사남요』가 서구의 근대의 역사를 서술했다면, 『사민필지』는 세계의 지리지식과 문화를 소개한 서적이다. 『사민필지』는 1906년에 수정판, 1909년에 제3판이 출간된 바 있는데,<sup>26)</sup> 당시 『황성신문』의 『광고』<sup>27)</sup>를 통해 『사민필지』가 경신학교<sup>28)</sup> 등의 지지(地誌) 교과서로 활용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소학만국지지』·『중등만국지지』 등 여타의 세계지리 교과서들에 비해, 『사민필지』는 국내의 시각에서 세계의 문화와 풍속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sup>29)</sup> 한문본(1895년)의 경우 국가별 설명의 말미에 작가의 평설(評說)을 부기하여 언급된 상황에 대한 가치나 의의를 평가·설명하고 있다.<sup>30)</sup> 이를 통해 당대 지식인들의 주변국에 대한 주요 관심사나 자국의 선별과제로 여겼던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

---

2015, 229~231쪽 참조)

- 25) “凡我韓人 이 此書를 先讀 訶야 其拘墟의 見과 膠滯의 胸을 化 訶면 또 訶 可히 先入의 主가 有 訶지니 … 然則 泰西新史란 者는 尺의 量이 有 訶며 衡의 量이 有 訶 者오” (『論說』, 『皇城新聞』 1899.7.29.)
- 26) 『사민필지』의 경우도 힐버트(Hulbert, H.B.)가 1886년 육영공원의 교사로 취임한 뒤, 저술한 지리 교과서이다. 1889~1893년 초판인 한글본이 출간되었고 1906년에는 수정판, 1909년에는 제3판이 출간되었다. 특히, 1895년에는 조선 의정부주사 백남규(白南圭)와 이명상(李明翔)이 한글본을 한역하고, 김택영(金澤榮)이 찬(撰)하여 조선의정부편사국(朝鮮議政府編史局)에서 한역본으로 간행할 만큼 상하 여러 계층의 이목을 집중시킨 출판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형태, 『한문본 사민필지의 유서적 특성연구』, 『열상고전연구』 70, 열상고전연구회, 2020, 195쪽 참조)
- 27) 『廣告: 學員募集廣告』, 『皇城新聞』, 1907.10.12.~16.; 『廣告: 學員募集廣告』, 『大韓每日申報』, 1907.10.12.~16.
- 28) 언더우드(H. G. Underwood)가 1885년 4월 5일 조선에 입국하여 1886년에 고아원을 창설하였는데, 해당 기관은 이후 경신학교(敬新學校)로 발전하게 된다. 1908년 경신학교 중등과의 교과목은 성경, 사서, 동서양역사, 만국지지, 지문학(地文學), 중등생리, 중등물리, 중등화학, 국가학 등이 있었다. (강영택, 『초기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 비교 고찰』, 『신앙과학문』 17(2), 기독교학문연구회, 2012, 20~23쪽 참조)
- 29) 『小學萬國地誌』는 일본지리서를 저본으로 일본인 번역관 등에 의해 편찬되었으며, 대략 100여개 국가나 지역의 지형, 기후, 토양, 역사, 문화, 도시, 인구, 상공업, 자원, 물산 등을 망라하고 있다. 『中等萬國地誌』는 일본 矢津昌永의 『中學萬國地誌』를 번역·편찬한 것이다. (강창숙, 『근대계몽기 세계지리 교과서 『小學萬國地誌』의 내용체계와 서술방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 한국지역지리학회, 2013, 747~763쪽; 『근대계몽기 세계지리 교과서 『中等萬國地誌』의 내용체계와 근대 지식의 수용과 변용』, 『문화역사지리』 28,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6, 1~19쪽 참조)
- 30) 김형태, 앞의 논문, 2020, 215~219쪽 참조.

에서는 「세계기문」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였다.

예컨대, 『사민필지』<sup>31)</sup>에서는 러시아에 대해, “해마다 새로운 학설로 만드는 책들이 거의 만가지이며, 장님과 귀머거리와 절름발이와 병어리인 사람이 이르더라도 또한 모두 학당에 들어가니, 온 나라 안에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sup>32)</sup>고 소개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도서관 설립은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주도로 시작되었는데, 1906년 2월 이범구(李範九), 이근상(李根湘), 박용화(朴鏞和), 민형식(閔衡植), 윤치호(尹致昊), 이봉래(李鳳來) 등이 모여 대한도서관 설립을 발기하였다. 이후로도 궁내부에 설치된 대한도서관을 확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왕실 내에서 국립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는데, 1911년 5월 총독부 취조국에 그간 수집했던 모든 장서를 빼앗기게 되면서 결국 폐관되었다.<sup>33)</sup>

또한 장애인 교육의 경우, 주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다가,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감리교 여성 의료선교사인 로제타 셔우드 홀(1865~1951)은 1898년 6월 광혜여원에 별도의 방을 마련하여 맹인 교육을 실시하여 1909년에는 농(聾)교육까지 확대(平壤盲啞學校)하였다. 1910년 일제로부터 ‘평양맹아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당시 총 학생수는 26명이었는데, 영세했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sup>34)</sup> 따라서 국가에 새로운 학설이 담긴 책들이 넘쳐나며, 장애인을 비롯하여 누구든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러시아의 교육 환경에 대한 소개는 당대 지식인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까지 자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근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기회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사민필지』에서 다루는 국가별 정보는 지리적 위치·면적·인구·문화·역사·문물·교육·군사·정치제도·풍속·언어 등 한층 다양하

31) 본고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문본 『士民必知』(白南圭·李明翔 譯, 1895)을 저본으로 삼았으며, 원문에 대한 띄어쓰기 및 해석은 『한문본 역주 사민필지』(김형태·고석주, 소명, 2020)에 따랐음을 밝힌다.

32) “...歲以新說成書者 近萬數以及瞽聾跛暗之人 亦皆入學 舉一國之內無不學之人...” (『士民必知』卷之一)

33) 송승섭, 『한국도서관사』, 한국도서관협회, 2019, 212~216쪽 참조.

34) 정창권, 『근대장애인사』, 사우, 2019, 63~77쪽 참조.

고 객관적이다. 이는 『사민필지』가 애당초 세계지리서(지리교과서)로 기획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세계기문』은 신문연재기사로서 한정된 지면에 독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특정사건이나 소재의 선택이 필요했다. 따라서 국가별 흥미로운 풍속과 민족적 기질 등 세부적이고 부가적인 정보의 전달에 보다 집중하였으며, 때론 객관성이 떨어지는 정보도 ‘기문(奇聞)’이라는 편명아래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소개하였다.

『세계기문』에 연재된 ‘러시아’ 국가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 세계에서 가장 맹인이 많은 나라로 소개하며 전체 인구 대비 맹인의 비율까지 수치로 보여주고 있고,<sup>35)</sup> 더불어 ‘세계 각국 도서관이 소장한 서적수를 비교하며 그 가운데 러시아가 3위<sup>36)</sup>에 해당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사민필지』에서 ‘만가지의 책’과 ‘장님이 학당에 다닐 수 있다.’는 러시아 국가에 대해 서술한 풍속기사와 연관지을 수 있는 대목으로, 이에 대한 지엽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풍속의 습관은 바람과 같아서, 바람은 부는 대로 통하고 습관은 보는대로 변한다<sup>37)</sup>’고 한 것처럼, 독자들에게 문명국의 다양한 풍속을 인지시킴으로써, 세계적 동향의 파악과 자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직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당대 지식인의 문명적 시선이 단순히 전통문화의 와해나 개조, 또는 수정의 차원이 아닌 풍속 계몽담론의 지속적 유포를 통하여 국민의 근대적 의식 고취를 기획하고 있었음<sup>38)</sup>’을 알 수 있게 한다.

35) “△世界各國中盲人의 最多인 國은 露國인디 露國은 人口一千八人에 對하여 盲人一人의 比例라더라” (『世界雜俎』, 『皇城新聞』 1909.3.14.)

36) “△現今 世界各國 大圖書館에 所藏인 書籍數를 據한 大略 如左라더라 冊券數의 多寡로 順序를 定함 … 俄國聖彼得堡帝國圖書館 一, 五〇〇, 〇〇〇 …” (『世界一覽』, 『皇城新聞』 1909.7.3.)

37) “...빅성은 셋셋인 성품이 업고 풍속은 덩흔 습관이 업서서 빅성의 성품은 물과 같고 풍속의 습관은 바람과 같호니 물은 인도하는 디로 흐르고 빅성은 마르치는 디로 화하며 바람은 부는 디로 통하고 습관은 보는 디로 변하느니라...” 『대한매일신보(괴서)』 1909.9.10

38) 이병철, 「근대풍속 계몽담론 소고」, 『한국사상과 문화』 73, 수덕문화사, 2014, 77~79쪽 참조.

### 3. 대륙별 풍속기사와 계몽담론

『세계기문』 연재기사는 전세계 다양한 풍속과 민족적 기질, 문화 등을 소재로 삼음으로써, 세계 열강과 주변국을 모델로한 계몽담론을 펼치고 있다. 전체 139편의 기사를 대륙별로 분류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대륙별 『세계기문』 기사 분류

대륙(편수)	기사 일련 번호
유럽(85)	1 · 3 · 6 · 8 · 11 · 12 · 14 · 20 · 21 · 22 · 23 · 27 · 28 · 29 · 30 · 31 · 32 · 35 · 36 · 38 · 39 · 40 · 45 · 46 · 50 · 51 · 52 · 53 · 55 · 61 · 63 · 65 · 66 · 67 · 69 · 70 · 71 · 72 · 73 · 75 · 76 · 77 · 79 · 80 · 82 · 83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3 · 94 · 97 · 99 · 100 · 101 · 104 · 105 · 107 · 110 · 111 · 112 · 113 · 114 · 118 · 119 · 121 · 122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 131 · 132 · 133 · 134 · 136 · 137 · 139
아메리카(34)	2 · 5 · 7 · 9 · 13 · 15 · 16 · 17 · 18 · 19 · 26 · 34 · 37 · 42 · 47 · 48 · 54 · 56 · 58 · 64 · 68 · 74 · 78 · 92 · 95 · 96 · 98 · 102 · 103 · 106 · 109 · 116 · 120 · 138
아시아(9)	10 · 41 · 43 · 49 · 57 · 81 · 84 · 115 · 123
아프리카(3)	24 · 33 · 62
오스트레일리아(2)	4 · 108
기타(6)	25 · 44 · 59 · 60 · 117 · 135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기사들이 유럽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 같이 유럽에 대한 편중된 서술은 『사민필지』를 비롯한 여타 세계지리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는 세계지리서의 편찬과 번역시 많은 부분 유럽의 지리서를 저본으로 삼은 결과일 수 있으며,<sup>39)</sup> 더불어 당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개화 및 사회진화의 논리가 추구했던 방향과 해당 유럽국가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39) 『소학민국지』에서 유럽대륙에 대한 정보는 다른 대륙의 국가들에 비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는 당시 유럽에 대한 편찬 저자들의 관심도가 높았다고 볼 수도 있으며, 저본으로 삼은 일본 서적이 유럽의 지리서를 번역하거나 참고한 서적임을 시사해 준다. (강창숙, 앞의 논문, 2013, 754~756쪽 참조)

다음은 유럽 국가 가운데, 독일에 대한 정보를 다룬 기사이다.

△獨逸國루 | 네벨히의옥 | 루젠市에서는近日에一家의家長된男子가午後上一時以後는 自宅을離지못히기로法律를發布 하얏는디此를違反호는者는金五圓의科料를出호디夫妻가各各半額을負擔호는다더라<sup>40)</sup>

△獨逸國에서는 速射砲을 附置호는 自働車를 製造하얏는디 此는 飛行機를 射擊호는 目的이라더라<sup>41)</sup>

첫 번째 기사에서는 ‘독일 가장(家長)의 통금시간과 벌금’이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다루고 있다. 집안의 가장인 남성이 오후 1시이후에 자택을 떠날때에는 금5환을 과료로 내는 것으로 부부가 반액씩 부담한다는 조항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다음 인용 기사에서는 ‘독일의 비행기 사격을 위한 속사포 자동차’라는 당시 국내에는 생소했던 장갑차에 대한 기사를 통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민필지』에서도 ‘독일 국민들에게 걷는 많은 세금을 통해 나라의 부유함을 언급한 것’<sup>42)</sup>과, ‘강력한 군사현황에 대해 서술한 내용’<sup>43)</sup>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독일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총리가 조직한 1884~1885년의 베를린 회의 이후 유럽의 패권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욕망을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후 카이저 빌헬름 2세가 세계정책(Weltpolitik)을 강력히 추진하며 1897년부터 군사력을 대규모 확대했는데,<sup>44)</sup> 당시 대한제국 내 강력한 군사력의 필요성과 넉넉한 국가의 재정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기 위한 기사였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유럽국가 가운데

40) 『世界奇聞』, 『皇城新聞』 1909.3.23.

41) 『世界奇聞』, 『皇城新聞』 1909.11.4.

42) “...稅課之入歲爲三百萬圓 此其富雄諸國者也...” (『士民必知』 卷之一)

43) “...其陸軍六十萬人 海軍二萬人 火輪戰艦百艘 鐵甲大艦二十七 強大之勢蓋俄之次也...” (『士民必知』 卷之一)

44) 에밀리 S. 로젠버그, 『하버드-C.H.베크 세계사: 1870~1945』, 민음사, 2018, 449~450쪽 참조.

독일을 언급한 기사는 8편이 확인되는데,<sup>45)</sup>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에 대한 기사들은 많은 부분 자국이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문명국의 면모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풍속 기사를 통해 자국의 반면교사로 삼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스페인에 대한 기사를 들 수 있다.

스페인인 19세기 내내 자유파와 보수파 사이의 내전으로 인해 나라 인파으로 혼란이 가중화되던 시기였다. 또한 1898년에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 파리에서 강화조약을 맺게 되면서, 유럽서남부의 주변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sup>46)</sup> 이같은 스페인의 몰락의 원인으로 『세계기문』은 그들의 야만적이고 기이한 풍습에 주목하였다.

△西班牙國에 차비온이라稱호는者 | 有호야野牛와 戰鬪호기를好호으로 鬪牛라는稱號를得호았는디 該氏는 二十五年間에 다만 一個의 武器를持호고 勇猛호野牛와 鬪호야 博殺호 數가 三千五百頭에 達호았다더러<sup>47)</sup>

△摩洛哥와 西班牙間에 數月來 戰爭호은 世所共知호는 바어니와 某報를據호는 즉 摩洛哥土人은 西軍을對호을 時에 自己의 帽服을 畜犬에게 覆호야 擬似兵을 作호는 後 該軍隊를 西軍에게 向호야 放호는 後 自己는 其後를 隨호야 西陣의 紊亂호을 乘而猛擊호는다더러<sup>48)</sup>

첫 번째 기사는 스페인의 한 투우사가 25년간 들소와 싸워 죽인 숫자가 3천5백마리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투우풍습’은 당시 끊임없는 내란과 국제분쟁을 겪고 있는 스페인에 대한 국민성을 파악하는 척도로 작용한 것이다.

45) 『세계기문』에서 독일에 대한 기사는 총8편이 등장한다. 『世界奇聞』 1909.3.23.(19); 『世界雜俎』 1909.4.2.(28); 『世界雜俎』 1909.4.3.(29); 『世界奇聞』 1909.4.7.(31); 『世界奇聞』 1909.6.17.(54); 『世界奇聞』 1909.6.23.(59); 『新聲』 1909.7.31.(68); 『世界奇聞』 1909.11.4.(70).

46) 신정환·전용갑, 『두개의 스페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1, 143~147쪽 참조.

47) 『世界奇聞』, 『皇城新聞』 1909.6.8.

48) 『世界奇聞』, 『皇城新聞』 1909.11.20.

『사민필지』에서도 글의 말미에 ‘투우의 풍습’을 소개하며, “이 때문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함이 많으니 이것은 비록 풍속이 기이하다고 할 만한 것이지만 또한 그 사람들의 싸움하기 좋아하는 성품을 알 수 있다.”<sup>49)</sup>라는 평설을 하였다. ‘재물이 매우 넉넉하지 못하고, 다른나라와 비교하여 그 도로를 잘 닦지 못했다’<sup>50)</sup>는 흑평과 함께, 당시 스페인을 바라본 국내의 시각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국내에서 스페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은 모로코 영토 분쟁과 연관이 깊다. 주지하듯 19세기말엽 스페인은 유럽 열강들과 함께 아프리카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었는데, 1906년 알헤시라스(Algeciras)에 모인 열강들이 스페인의 모로코 북부 지배권을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모로코는 그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회담 결과에 크게 저항했으며, 1909년 바라코 델 로보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는 모로코가 스페인 군대를 크게 물리치기도 했다.<sup>51)</sup> 『황성신문』 『외보(外報)』에서도 모로코문제(摩洛哥問題)<sup>52)</sup> 대해 당시 국제적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두 번째 인용문도 모로코 사건을 전하는 기사이다. 다만 모로코와 스페인 양국간 수개월에 걸친 전쟁을 소개한 것 외, 모로코인들의 특별한 전투방식을 소개하며 독자의 관심을 이끌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아메리카에 대한 기사의 비중도 다소 높은 편인데, 대부분 미합중국에 대한 정보를 소개한 기사라 할 수 있다. 『세계기문』은 여타 세계지리서와 달리 국가별 흥미로운 풍속들을 소개한 신문연재기사이기 때문에, 주요 국가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기사들을 게재했기 때문이다. 『사민필지』에서도 미합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재물이 풍부한 나라로 소개하고 있을 만큼,<sup>53)</sup> 선망의 대상으로서 해당 국가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세계기문』에서도 미합중국에 대한 다수의

49) “...以此多致斃 此雖風俗之可怪者 而亦可以知其人好戰之性云...” (『士民必知』 卷之一)

50) “...財不甚富...比他國 不甚修其道路也...” (『士民必知』 卷之一)

51) 서희석, 『한권으로 읽는 스페인 근현대사』, 을유문화사, 2018, 315~320쪽 참조.

52) “摩洛哥問題 摩洛哥國은지부르다 海峽을 隔호야 西班牙와 相對호고 (… 然而摩洛哥國인이 歐洲列國이 互相排擠호야 其獨立을 奪치못호을 稔知호는 故로 此를 利用호야 紛擾를 釀成호야 國內의 紛擾가 不息호으로 今番에 法西兩國이 再次活動호다더라” (『外報』, 『皇城新聞』 1906.12.8.)

53) “... 今天下最號富饒 其財額大概六萬七千百萬圓云 ... 稅入四百百萬圓 ...” (『士民必知』 卷之二)



기사들이 국가의 재력 뿐만 아니라 국민 개인의 풍족함까지도 주요 소재로 삼고 있다.

△米國의 石油王 룻쿠웨라氏는 一月廿一日 시카고大學을 爲호야 年年四萬弗의 純益이 有호는 私產百萬弗을 寄付호았는디 此金額과 氏가 同大學에 最初부터 寄付호는 金額을 合算호면 二千四百八十萬弗의 巨額에 達호았다니 可謂富家翁의 寄付法이로다<sup>54)</sup>

△紐育에 在호는 레큐이라 稱호는 夫人이 鐵道事故를 因호야 膝關節에 負傷함으로 天父의 祈禱호는 時에 跪望함을 不得호야 精神慰安에 一大缺點을 生호았은 즉 紐育鐵道會社에서 四千圓의 賠償을 得케 호라고 裁判所에 呈訴호는 바 同裁判所判事는 此를 至當호는 事로 認定호야 右會社에 賠償을 命호았더라<sup>55)</sup>

첫 번째 기사문에서는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John Davison Rockefeller)가 시카고 대학을 위하여 100만불을 기부했고, 지금까지 시카고 대학에 총 기부한 금액이 2480만불에 달하였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세계기문」에서는, 록펠러에 대해 미국 시카고 대학교 기념도서관 건설비 가운데 60만불을 기부했다는 기사<sup>56)</sup>까지 게재하였다. 그 밖에도 ‘미국 1년간 금니를 사용하는 금액’<sup>57)</sup>과 ‘미국의 밀(小麥)업자의 수익량’<sup>58)</sup> ‘미국 부호(富豪) 딸이 받은 결혼선물’<sup>59)</sup> 등 미국인들의 재력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앞서 독일 기사에서처럼, 국가 재력에 대한 관심은 동시에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벌금 등<sup>60)</sup>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다른 한 편

54) 『世界雜俎』, 『皇城新聞』 1909.3.12.

55) 『世界奇聞』, 『皇城新聞』 1909.5.30.

56) 『世界奇聞』, 『皇城新聞』 1909.3.17.

57) 『世界奇聞』, 『皇城新聞』 1909.3.31.

58) 『世界奇聞』, 『皇城新聞』 1909.4.13.

59) 『世界奇聞』, 『皇城新聞』 1909.6.18.

60) ‘뉴욕시에서 시행된 침벨기 금지법을 통해 매일 2백여명이 부담하는 벌금’(『世界雜俎』 1909.4.3.)

에서는 국가나 기업이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배상금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두 번째 인용기사를 살펴보면 한 개인이 뉴욕의 철도사고로 인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의 큰 재력은 국민들에게 걷는 세금에 기반하지만, 그 재력으로 인하여 자국의 국민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환기시키는 기사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유럽 열강과 미합중국에 대한 정보는 당시 조선과의 이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자국이 지향해야할 근대화의 면면에 대한 실례로 보여준 것이었다면, 아시아 국가에 대한 기사들은 ‘소인국의 발견’,<sup>61)</sup> ‘마귀할멈’<sup>62)</sup> · ‘귀마’<sup>63)</sup> 등, 다소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소재들을 통해 미개화된 비문명국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한 기타 국가들을 소개한 기사에서도 동식물, 곤충 등을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어, 당시 조선이 주변국을 바라본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895~1910년에 발행된 일련의 역사류 저작들이 ‘본받아야할 대상으로 유럽 근대국가의 태동을 다룬 것’과, ‘반면교사로서의 의미가 있는 비유럽국가의 식민지 전략사를 다룬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sup>64)</sup>과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기문』의 연재가 종료된 이후(1909.12.3)로도 신문이 폐간되는 시점(1910.9.14.)까지 『담총(談叢)』, 『진담(珍談)』 등 약 150여편의 해외기사들이 연재를 이어갔다. ‘담총’, ‘진담’ 등의 편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기문』에 비해 기이(奇異)한 소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담총(談叢)』 · 『진담(珍談)』은 ‘우리나라의 국화(國花)로서 도화(桃花)를 정함을 주장하는 글’<sup>65)</sup> ‘청국의 한 여사가 일본 유학생으로 가서 자유결혼을 제창한 사건’<sup>66)</sup>

와 ‘하와이에서 23세이상 미혼자에 대해 미혼세를 과징하는 법안’(『世界奇聞』 1909.4.17.), ‘멘주에서 30세이상 남성미혼자 과징하는 법안’(『世界奇聞』 1909.6.19.), ‘북미에 아내의 승낙을 얻지 않고 입맞춤을 하다가 벌금을 낸 사건’(『世界奇聞』 1909.11.27.) 등을 찾을 수 있다.

61) 『世界奇聞』, 『皇城新聞』 1909.7.8.

62) 『世界奇聞』, 『皇城新聞』 1909.11.2.

63) 『世界奇聞』, 『皇城新聞』 1909.6.9.

64) 강명관, 앞의 논문, 1999, 67쪽 참조.

65) 『談叢』, 『皇城新聞』 1909.7.1.

66) 『談叢』, 『皇城新聞』 1909.7.8.

‘프랑스 육군에서 채용한 자동선차(自働船車)의 성능을 논한 글’<sup>67)</sup> 등 『세계기문』에 비해 사회비판적인 주제의 기사들을 담고 있다.

‘담총’이란 제명은 전통적으로 연암 박지원의 글을 모은 『담총외기(談叢外記)』 등에서도 쓰였듯이, 한문단편에 활용하던 제명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근대에 이르러 『대한홍학보』(1909.3.20.~1910.5.20.)에서도 『담총』란에서는 비판적인 ‘논설’을 담았으며 그보다 앞서 『서북학회월보』에도 ‘담총’이란 명칭을 사용하며, 비판조의 대화체 서사가 실었다.<sup>68)</sup> 특히, 『대한홍학보』에서는 편집자 논평 형식을 담고 있는데, 『황성신문』의 『담총』에서도 초기 기사에는 편집자 논평 형식<sup>69)</sup>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담총’이라는 표제 자체가 당시 개화사상 및 사회비판을 담은 단편 기사를 지칭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계기문』의 연재가 종료된 이후에도 『담총』·『진담』의 기사 내에 기이한 소재를 다룰 경우, ‘기문(奇聞)’<sup>70)</sup>의 편명으로 구분을 주거나, 기존 ‘진담’이란 편명에 ‘이문진담(異聞珍談)·기문진담(奇聞珍談)’ 등으로 변화를 주기도 했다.

『황성신문』에 연재된 일련의 해외 기사들이 모두 국민의 근대 의식 고취라는 목표 아래 있었음은 자명하다. 풍속 계몽담론을 전개했던 『세계기문』의 연재가 한 축을 이루었다면, 다른 한 편에서는 『담총』 등의 다양한 표제어를 통해 기사의 성격을 변형해가며 새로운 시도와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1909년 12월 3일자로 『세계기문』의 연재가 종료되면서, 『세계기문』의 역할은 온전히 『담총』·『진담』의 기사들이 담당하게 되었다. 보다 개화사상과 사회비판적 성격이 강해진 해외기사들은 『황성신문』이 폐간되는 시점까지 꾸준히 연재를 이어가게 된다.

67) 『珍談』, 『皇城新聞』 1909.12.19.

68) 전은경, 「근대계몽기 서북지역 잡지의 편집 기획과 유학생 잡지의 상관관계」, 『국어국문학』 183, 국어국문학회, 2018, 253~266쪽 참조.

69) 『談叢』, 『皇城新聞』 1909.7.1.

70) 『奇聞』, 『皇城新聞』 1910.6.5.; 『奇聞』, 『皇城新聞』 1910.8.23.

#### 4. 결론

지금까지 『황성신문』에 연재된 「세계기문」의 개별 연재기사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해외기사가 발표된 배경이나 의미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세계기문」 연재현황과 기사의 성격을 알아보고, 이 같은 해외기사들이 연재된 배경에 대해 논의하였다. 1905년~1910년 사이는 애국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당시 출판운동의 영향으로 학부 및 민간 출판사·인쇄소 등의 본격적 활동과 함께 다수의 서학서들이 집중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국내 출판운동의 흐름은 『황성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905년 이후 「논설」란과 「광고」란 등에서 외서에 대한 소개글이 급증하였으며, 1909년에 이르러 「세계기문」을 비롯한 해외 단편 기사들이 신문에 장기간 연재된 것도 국내 출판운동의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계기문」의 기사내용에 있어 서학서의 영향에 주목하였는데, 여타 세계지리서에 비해 국내 주변국에 대한 주요 관심사나 자국의 선별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민필지』와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세계기문」은 신문연재기사로서 한정된 지면에서 독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특정사건이나 소재의 선택이 필요했기에, 『사민필지』에 비해 국가별 흥미로운 풍속과 민족적 기질 등 세부적이고 부가적인 정보의 전달에 보다 집중하였다. 또한 풍속 계몽담론의 지속적 유포를 통하여 국민의 근대적 의식 고취를 기획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륙별로 기사를 분류하여 각 풍속 기사의 특징들과 계몽담론들을 살펴보았다. 「세계기문」은 국가별 흥미로운 풍속기사를 통해 자국이 배워야 할 점에 대해 역설하는 한편, 반면교사로 삼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미합중국 및 유럽 열강에 대한 정보는 당시 조선과의 이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자국이 지향해야 할 근대화의 면면에 대한 실례로 보여준 것이었다면, 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포함한 기타 국가에 대한 기사들은 다소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소재들을 통해 미개화된 비문명국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이 주변국을 바라본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기문』의 연재가 종료된 이후로도 신문이 폐간되는 시점까지 「담총(談叢)」, 「진담(珍談)」 등 약 150여편의 해외기사들이 연재를 이어갔다. 『세계기문』에 비해 기이한 소재가 현저히 줄어들고 점차 개화사상과 사회비판적 성격이 강해진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황성신문』이 근대의식 고취라는 취지아래 다양한 표제어를 통해 기사의 성격을 변형해가며 새로운 시도와 가능성을 모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09년 이후 『황성신문』에 연재된 해외 풍속기사들만의 특징을 검토한 것이다. 『황성신문』은 창간 초기부터 「전보」·「외보」란에 꾸준히 발표했던 해외기사들이 있는데, 해당 기사들과의 비교·분석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이들 기사와의 주제·내용상의 차이 외에도 글쓰기 형식 및 논조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해외 단편기사들의 문학사적인 의미를 온전히 고찰하기 위해서는 해당 논의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 ■ 참고문헌

### 1. 자료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士民必知』(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문본, 1895)

### 2. 논서

- 강명관, 『근대계몽기 출판운동과 그 역사적 의의』, 『민족문화사연구』 14, 민족문화사학회, 1999, 42~74.
- 강미정·김경남, 『근대 계몽기 한국에 수용된 중국 번역 서학서』, 『한국에 영향을 미친 중국 근대지식과 사상』, 경진, 2019. (?)
- 강영택, 『초기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 비교 고찰』, 『신앙과학문』 17(2), 기독교학문연구회, 2012, 7~37.
- 강창숙, 『근대계몽기 세계지리 교과서 『小學萬國地誌』의 내용체계와 서술방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 한국지역지리학회, 2013, 747~763.
- \_\_\_\_\_, 『근대계몽기 세계지리 교과서 『中等萬國地誌』의 내용체계와 근대 지식의 수용과 변용』, 『문화역사지리』 28,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6, 135~153.
- 김형태, 『한문본 사민필지의 유사적 특성연구』, 『열상고전연구』 70, 열상고전연구회, 2020, 193~224.
- \_\_\_\_\_, 고석주, 『한문본 역주 사민필지』, 소명, 2020.
- 박정규, 『개화기의 외국뉴스 고』, 『한국언론학보』 13, 한국언론학회, 1980, 41~54.
- 반재유, 『『황성신문』의 시평 연구』, 『한국학연구』 4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223~242.
- \_\_\_\_\_, 『황성신문의 독후설 연구』, 『배달말』 67, 배달말학회, 2020, 93~116.
- 서희석, 『한권으로 읽는 스페인 근현대사』, 을유문화사, 2018.
- 송승섭, 『한국도서관사』, 한국도서관협회, 2019.
- 신정환·전용갑, 『두개의 스페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1.
- 에밀리 S. 로젠버그, 『하버드-C.H.베크 세계사:1870~1945』, 민음사, 2018.
- 이병철, 『근대풍속 계몽담론 소고』, 『한국사상과 문화』 73, 수덕문화사, 2014, 55~82.
- 전은경, 『근대계몽기 서북지역 잡지의 편집 기획과 유학생 잡지의 상관관계』, 『국어국문학』 183, 국어국문학회, 2018, 231~270.
- 정창권, 『근대장애인사』, 사우, 2019.
- 허재영, 『광학회 서목과 『태서신사남요』를 통해 본 근대 지식 수용과 의미』, 『독서연구』 35, 한국독서학회, 2015, 229~252.
- 황영원, 『근대전환기의 서적과 지식체계 변동』, 『대동문화연구』 8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3, 321~346.

## A Study on Articles about Foreign Customs in Modern Newspapers

Ban, Jae-Yu\*

This study focuses on *Segyegimun* which lasted for about nine months from March 11, 1909 to December 3, 1909. (139 episodes in total) Each article in *Segyegimun* shows the views of intellectuals of those days on neighboring countries and enlightening discourses that they tried to develop.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about the brief articles about foreign countries published in the *Hwangseongsinmun*. The consideration about the articles, including *Segyegimun*, is a prior task to understand the overall tone of the *Hwangseongsinmun*, its transitional aspects, and the tendency of the press around the time of the annexation of Korea and Japan.

This study first looks into the serialization of *Segyegimun* and the characteristics of its articles, and then examines the background of publishing brief articles about foreign countries serially. In the process, this study discusses the association and distinction by comparing them to *Saminpilji*, a widely used world geography textbook.

Next, in classifying the articles by continent, their characteristics and enlightening discourses are analyzed in this study. This study probes the aspects that *Segyegimun* tried to instruct with interesting articles about customs of foreign continents and countries, and contemplates the planning which *Hwangseongsinmun* tried to promote the people's modern consciousness. In

---

\* HK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the Study of Korean Modernity, Yonsei University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other articles about foreign countries in *Damchong* and *Jindam*, which continued serialization even after the end of the serialization of *Segyegimun* until the closing of the *Hwangseongsinmun*. The distinction between them and *Segyegimun* is also confirmed by inspecting their titl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ticles.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we can identify the intention, direction, and change of the serial articles about foreign countries in *Hwangseongsinmun*.

**Key words**: the Hwangseongsinmun, Segyegimun, Saminpilji, article about foreign countries, article about customs